10. 농악(農樂)

[1] 개 설

농악이란 팽과리, 징, 장구, 북 등의 타악기를 연주하며 의식, 행진, 놀이, 곡에 따위를 연행(演行)하는 음악인데 '굿', '매굿' 또는 '풍장'이라고도 부른다. 따라서 서낭당의 제사에는 '당산굿' 정초의 '지신밟기', 부락공동 경비 마련을 위한 '걸립굿', 마을 공동 작업을 위한 '두레굿', 농악의 연주 솜씨 자랑을 위한 '판굿' 등이 그 대표적인 농악놀이에 속한다.

[2] 농악의 유래

농악은 당굿과 같은 마을굿에서 발생하여 지신밟기굿, 두레굿으로 발전했다고 하며 지신밟기굿에서 걸립굿이 파생하였고 이 걸립굿과 두레굿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 판굿으로 발전했다고 한다.

상고시대에 우리 서인들은 봄철의 씨 뿌릴 때와 가을의 수확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천의식(祭天儀式)이 있었는데 이 때에 농악이 시작되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3] 농악의 종류

(1) 당굿

당굿은 마을 사람들이 농악을 치면서 마을의 평화와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마을굿이다.

우리 고장에서는 굿패들이 농악을 크게 치며 서낭대를 앞세우고 당집 앞에서 여러 가지 농악 놀이를 벌인 다음 마을로 내려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집돌이를 함으로써 집안의 잡귀를 몰아내고 복을 불러들이도록 하려는 염원을 나타내었다. 악귀들은 농악대의 풍물 소리에 놀라 멀리 도망간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2) 걸립패

마을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굿패를 꾸미어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집돌이를 하여 돈과 쌀을 모으는 일을 걸립(乞粒)이라 하고 걸립을 하기 위해 조직한 굿패를 걸립패라고 한다.

걸립의 목적에 따라 걸립패의 종류를 분류하자면 절(寺)을 중창할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절걸립패, 나룻배를 만들 경비 마련을 위한 나루걸립패, 서당(書堂)을 짓기 위한 서당 걸립패, 기타 낭걸립패, 신청걸립패, 포장걸립패 등이 있다. 낭걸립패와 신청걸립패는 고사굿을 쳐 주고 돈을 받으며 포장 걸립패는 장마당에서 농악을 보여 주고 돈을 거두는 굿판이다.

(3) 두레굿

마을에서 농사를 짓기 위한 노동 조직체를 '두레'라고 하며 두레를 짜서 농사일을 하는 사람들을 '두레패'라고 하였고 이 두레패들이 울리는 농악을 '두레굿' 또는 '두레풍장이'라고 부른다. 두레패들이 일하러 나갈 때에 농기(農旗)를 앞세우고 길군악 가락에 맞추어 행진하며 작업을 하고 나서 쉬는 시간에 피로를 잊기 위해 농악을 치기도 하며 작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농악을 울렸다.

(4) 판 굿

걸립패나 두레패들이 넓은 마당에서 화려한 복색으로 온갖 풍물을 갖추어 갖가지 기예를 보여주는 농악놀음을 판굿이라고 한다.

판굿은 먼저 농악대가 줄지어 늘어서서 이리저리 돌면서 진(陳)놀이를 먼저하고 이어서 버구놀이, 상쇠놀이, 무동놀이, 동고리등 여러 놀음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도둑잡이와 같은 연극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4] 농악기의 종류

(1) 팽과리

팽과리는 직경 25cm 정도 되는 얇고 조그마한 타악기로서 얇은 놋쇠판으로 만들었고, 둘레에 너비 3cm 정도 되는 전을 달았다. 전의 위에 2개의 구멍을 뚫어 끈을 달았고 가느다란 대나무 뿌리로 자루를 만들어 끝에 단단한 나무를 깎아 공이를 박은 팽과리 채로 쳐서 소리를 내는 리듬 악기이다. 팽과리는 웅악에서 가장 중요한 구실을 하는 악기로서 상쇠를 벌여 진 소리가 나는 암쇠 팽과리를 치고 부쇠는 막힌 소리가 나는 숫쇠 팽과리를 친다.

(2) 징

징은 직경 60cm쯤 되는 넓은 놋쇠판으로 쳐서 만들고 둘레에 너비 7cm쯤 되는 전을 달았다. 전에 두 개의 구멍을 뚫어 끈을 달았고 막대기에 짚을 돌려 감아서 만든 징채로 쳐서 소리를 내는 타악기이다.

(3) 장구(長鼓)

장구의 길이 100cm, 직경 40cm쯤 되는 오동나무를 파서 만든 장구통의 양편에다 쇠테에 멘 가죽을 대고 가막쇠를 걸어 굵은 끈으로 만든 속바를 얹어 매고 부전을 끼워서 조이게 되어 있다. 무명으로 끈을 달아 어깨에 메고 오른손에는 가는 대나무로 깎은 열채를 쥐고 왼손에는 궁글채를 주고 치는 타악기인데 팽과리를 도와 주된 리듬을 친다.

(4) 북

북은 높이 25cm, 직경 45cm되게 소나무로 짜아 만든 나무통 양쪽에 쇠가죽을 메워 만든 타악기인데 무명으로 끈을 달아 어깨에 메고 오른손으로 북채를 쥐고 치는 악기이다.

(5) 버꾸

버꾸는 높이 4cm, 직경 35cm 되는 첩바퀴로 들고 친다. 버꾸는 소리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춤을 추며 곡예를 벌이는 동작에 중점을 두는 타악기로서 리듬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다.

(6) 나발

나발은 길이 150cm, 직경 7cm 되게 놋쇠를 쳐서 관을 만들어 한 쪽에 취구(吹口)를 만들고 다른 한 쪽에 나발 주둥이를 달았는데 취구(吹口)에 입술을 대고 바람을 불어 넣으면서 입술을 진동시켜 소리를 낸다. 이 나발은 농악대의 집합, 연주의 시작, 판굿의 중요한 절차에서 신호용으로 사용되었다.

[5] 농악대의 복색

농악수들은 흰 복색 바지·저고리에 색띠를 띠고 머리에 병거지를 쓰는데 배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병거지를 쓴다.

(1) 팽과리잡이와 징잡이

부포리가 달린 병거지를 쓴다.

(2) 장구잡이와 북잡이

생피지가 달린 병거지를 쓴다

(3) 버꾸잡이

생피지가 달린 병거지를 쓰는데 그 중의 한 사람을 판굿에 열 두발 채사오가 달린 병거지를 쓰고 열두 발 상모놀음을 하기도 한다.